2015년 기독교대한감리회 평신도

월례회공과

감리교회를 빛낸 평신도 Ⅲ

Contents

1과	기독교 청년운동가 **노병선**	4
2과	교회교육 활동가 **김폴린**	9
3과	교육운동가 **장용하**	14
4과	임시정부의 대부 **이동녕**	19
5과	애국 할머니 **조신성**	24
6과	교육운동가 **강매**	29
7과	헤이그 밀사 **이준**	34
8과	여성독립운동가 **오신도**	39
9과	20세기 종로의 성자 **현동완**	44
10과	하얼빈 사건의 공모자 **우덕순**	49
11과	신앙과 행동의 일치 **곽만영**	54
12과	한국의 첫 여성 법조인 **이태영**	59

“감리교회를 빛낸 평신도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평신도들의 역할을 매우 중요시 했습니다. 당시의 평신도 지도자들은 목회자가 할 일을 대신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고, 감리교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 역시 초창기부터 평신도들의 역할이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만일 평신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 감리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유능한 목회자라도 평신도들의 협력과 헌신이 없다면, 결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만의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사회평신도국이 “감리교회를 빛낸 평신도”를 주제로 월례회 공과를 펴낸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던 한국 감리교회의 소중한 평신도들이 이 교재를 통해 발굴되고, 그들의 이야기가 소개됨으로써, 우리에게 좋은 교훈과 귀감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침체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평신도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활동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2015년 기독교대한감리회 평신도 월례회 공과〉가 교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좋은 기폭제가 되기를 충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교재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재가 나오기까지 집필과 편집을 위해 힘써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사회평신도국 모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고 또 한 해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책임을 다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평신도 여러분!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4년 12월

사회평신도국 위원장 안승철 감독

“오늘의 혁신, 내일의 희망”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160만 평신도들이 감리교회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리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가 되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지난 2014년 사회평신도국은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정하고 ‘평신도단체 영성훈련’ ‘청장년선교회 임원교육’ ‘평신도 성서 아카데미’ ‘평신도주일 성수’ ‘평신도 재능기부운동’ ‘기술자원봉사활동’ ‘생명나눔운동’ ‘사회적기업 활성화’ ‘보건주일 성수’ ‘노인대학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평신도들의 영성훈련과 차세대지도자 양성 그리고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나눔과 섬김으로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감리교회 평신도들이 감리교회 혁신의 주체로서 감리교회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사회평신도국 주제를 제31회기 총회 주제인 “오늘의 혁신, 내일의 희망”으로 정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2015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월례회 공과는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시리즈인 ‘감리교회를 빛낸 평신도Ⅲ’을 발간하여 자랑스러운 감리교인 12인을 소개합니다. 이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피 흘리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라와 민족의 희망을 열어 주었던 자랑스러운 감리교 평신도들의 삶을 통하여 감리교회 평신도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바쁘신 중에도 ‘평신도 월례회 공과’를 역사적 소명과 책임감으로 3년간 집중 연구하여 집필해 주신 조이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월례회 공과 발간 실무를 맡아 수고한 박은애 부장과 발간에 참여해 도움을 주신 박경진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과를 사용하는 남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더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12월

사회평신도국 총무직무대리 송윤면 목사

1과

기독교 청년운동가
노병선

조용한 기도 : 다함께

찬　　송 : 552장(통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기　　도 : 맡은 이

성경봉독 : 이사야 60:1~3

참고성경 : 요한계시록 21:1~8

요　　절 :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이사야 60:1)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2015년 한국 감리교의 아펜젤러 스크랜턴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가 밝았습니다. 130년이란 자랑스러운 역사는 시간만 흐른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믿음의 선배들은 한국 감리교를 세우고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할 오늘의 한국 감리교와 우리 평신도들이 그들의 열정과 희생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기억하여 그들의 뒤를 따라가야 할 이유입니다.

2015년 평신도 월례회 공과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자랑스러운 감리교 평신도들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새 시대를 열어가는 감리교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 교훈을 얻자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 인물은 노병선입니다. 노병선은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청년운동과 전도활동에 헌신한 분입니다.

본론

노병선은 1871년 평북 철산에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향에서 한학을 수학하다가 뒤늦게 큰 뜻을 품고 서울로 올라와 배재학당에 입학하여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접하였습니다. 그는 이승만, 신흥우, 송언용, 문경호 등과 함께 1897년 7월에 배재학당을 졸업하였고 졸업 후에는 배재학당 교사로 활동하였습니다.

노병선은 배재학당 재학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학생 활동에 나서 1896년 11월 30일에 창립된 '협성회'에서 부회장 등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협성회는 미국에서 귀국한 서재필이 지도한 청년운동체로 충군애국하는 마음을 굳게 세우고, 학생들 서로가 친목할 뿐 아니라 배운 대로 전국 동포를 가르치려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회의 회원은 처음에는 배재학당의 학생과 교직원으로 한정하였으나 나중에는 일반인들에게까지 개방하였습니다. 협성회에서는 회의 진행하는 법을 가르쳤고,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공개적인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의 주제는 '국한문 혼용' '학생 복장 착용' '여성 교육' '남녀교제의 자유' 등과 같은 일반인들을 계몽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의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현실 문제들을 채택하였는데 그 자신도 이 토론회의 연사로 참석하곤 하였습니다.

그 이듬해인 1897년에는 기독교 청년운동의 시작으로 기록되는 감리교의 청년조직인 '엡웟청년회'(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의 전신)의 창립을 위한

기초를 닦았습니다. 조직 목적은 "청년들의 활기와 열의를 한국의 구원을 위한 밝은 희망과 큰 포부 속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엡웟청년회 창립위원으로 중앙본부 임원(서기와 통신국장)을 맡아 각 교회의 엡웟청년회 조직과 활동을 지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동시에 1897년 10월 31일 정동제일교회의 남자 엡웟청년회(월은지회)의 창립을 주도하면서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노병선은 1897년에 전도 문서를 순한글로 저술하여 펴냈습니다. '파혹진션론'이란 제목의 문서인데, 16면에 불과한 작은 책자지만 한국 개신교 역사상 한국인이 기록한 첫 기독교 변증론이라는 데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파혹진션론'이란 '의혹을 파하고 착한 데 나아가게 함'이란 뜻입니다. 그 내용은 "선교사들이 왜 자기 돈을 쓰며 타국에 와서 희생하며, 선교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한국인의 의혹에 대해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유를 "어느 나라이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이 관영하여 죽을 지경이 된 나라가 있다 하면 기어이 부비를 구취하여 전도교사를 보내어 그 나라 사람을 한 형제로 여기고 천로로 인도하여 자기와 동등한 사람이 되기를 일구월심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기독교가 서양 종교라는 수구 세력의 관념을 부정하고, "대저 도의 근원은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 어찌 서양 하늘과 동양 하늘이 다르다 하리오."라 하면서 기독교를 동양과 서양의 도를 아우르는 하늘의 도(天道)로 해석하는 토착신학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초기 한국인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이해하고 수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또 그는 감리교의 초기 신문인 〈대한크리스도인회보〉에 많은 논설을 남겼습니다. 그가 저술한 글들을 살펴보면 사회평등사상(상하와 남녀가 평등하며 제각각 개성과 장단이 있어 서로 의논하고 협력해야만이 문명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인간의 기본권사상(이는 자유하는 권리요 자주권이며, 이것이 없다면 인간은 초목과 금수에 불과하다. 또한 인간의 자유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사회

교육사상(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우선 필요하며, 교육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려서부터 해야 한다.), 자립·근로사상(게으르거나 놀고먹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요, 근면하게 일해서 자립하고 걸인에게까지 기회를 주어야 한다.), 언론사상(민중을 대변하는 언론의 책임과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데 중요성을 논함) 등과 같은 개혁적인 사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의 기독교사상은 그의 민족운동·애국계몽사상과 직결되며, 사회평등사상·자유민권사상·사회개혁사상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노병선은 1894년에는 홀의 통역인으로 평양 개척의 기반을 닦으면서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1897년부터 1901년까지 동대문교회 설교자로 활동하였고, 1902년 6월 아펜젤러 선교사가 순직한 이후 거의 1년 동안 정동제일교회의 실질적인 목회자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1903년부터는 스크랜턴 선교사의 조사가 되어 상동교회에 출석하면서 서울 남부지역을 순행하며 전도하는 한편 전덕기 목사가 지도하는 상동파 민족운동가와 함께 민족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후 일제가 본격적으로 한국을 지배하면서 평양으로 이주하여 광성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며 후진 양성에 힘썼습니다. 1930년대 초에는 서울 창천동으로 이사하여 이필주 목사가 시무하던 창천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그는 일제말기에도 끝까지 일본말을 배우지 않았고 창씨개명도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제의 박해와 위협이 계속되자 서울 인근의 능곡으로 피난하여 은거생활에 들어갔습니다. 능곡에서는 능곡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다가, 집 한 채만 남긴 채 1941년 1월 11일 70세에 별세하였습니다. 별세할 때 "승만이 형, 승만이 형"을 불렀다 하며, 이승만 박사도 해방 직후 귀국하여 제일 먼저 노병선 선생을 찾았다 합니다. 6·25 때까지 가족들은 능곡에 거주하였는데 6·25 때 조병옥 박사의 처가라고 북한군들이 집마저 불태웠고, 이때 그가 남긴 자료와 문서들이 모두 불타 없어졌습니다.

결론 노병선은 궁핍한 외진 곳에서 성장했지만 뒤늦게 큰 뜻을 품고 서울로 올라와 배재학당에서 기독교에 기반을 둔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였습니다. 신학문, 그 중에서도 서재필의 한국을 자주독립국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민주주의 교육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출세가 아니라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노병선은 먼저 협성회와 엡웟청년회를 통해 활동하였습니다. 이 청년 조직들은 한국을 새롭게 하는 활동으로 이 일에 적극 참여했을 뿐 아니라 이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에도 앞장섰습니다. 또 그는 선교사를 돕는 전도인으로 역할하면서 평양과 서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문서를 통한 계몽 활동에도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와 우리교회, 그리고 감리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2. 그 사명을 다 하기 위해 우리와 남선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찬　　송 : 459장(통 514장, 누가 주를 따라)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주기도문 : 다함께

2과

교회교육 활동가
김폴린

조용한 기도 : 다함께

찬　　송 : 292장(통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기　　도 : 맡은 이

성경봉독 : 마태복음 28:16~20

참고성경 : 디모데전서 4:11~13

요　　절 :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20)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김폴린은 교회교육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분입니다. 이분의 삶을 통해 믿음생활의 기초와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 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는 전설적인 전도부인 전삼덕의 손녀로 신앙의 전통을 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전달받은 신앙을 확산하는 교육활동에 직접 나섰습니다.

김폴린은 전도대에 참여하여 백성을 깨우치는 활동에 나선 이후 절제운동을 하였고, YWCA운동을 통한 민족계몽운동에 앞장섰으며, 총리원 교육국과 감리교신학교에서 교회학교 교육을 지도하며 교회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여선교회 활동과 평신도 활동에 헌신하였고 한국 감리교의 설립에도 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론

김폴린은 1898년 4월 평남 강서의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폴린은 세례명 '바울'을 여성명사화한 것으로 한자로는 '보린'(保麟)입니다. 그가 출생한 가정은 신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진 집안입니다. 할머니인 전삼덕은 서북지방 여성으로서는 제일 먼저 세례를 받았고 세례 후에는 전설적인 전도부인으로 활동했으며 강서읍교회와 함종교회, 숭덕학교를 설립한 분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김폴린은 일찍부터 기독교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1915년에는 이화학당 중학과, 1919년에는 이화학당 대학부(예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20년 6월에는 '이화7인 전도대'의 일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화7인 전도대는 홍에스더 김활란 김함라 윤성덕 김애은 김신도와 김폴린 등 이화학당의 교사와 학생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처럼 민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우리 민족이 잘사는 길과 건강, 교육, 사회, 경제를 개선시키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았습니다. 7인 전도대는 평양 신의주 선천 안주 곽산 정주 북진 양시 차령관 강서 등 북쪽 지역을 돌며 전도 사업과 계몽운동을 함께 전개했습니다. 전도대가 활동하는 마을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강연의 내용이 민족정신을 고취한다는 이유로 일제의 심한 제재를 받아야 했고 마침내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1923년 대학과를 8회로 졸업하고 그해에 이화학당 교사로 부임하였으며, 3·1운동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한 절제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교인들의 절제생활은 선교 초기부터 강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 이후 술 담배 아편 등이 널리 퍼지고 공창까지 생기면서 한국인들의 정신까지 피폐화되자 신앙적·도덕적 차원뿐 아니라 민족운동 차원에서도 이를 금지하려는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금주 · 금연 운동은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범교회적이고 전국적인 절제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감리교는 1921년 각 지방에 순회강연대를 파견해 금주운동을 폈으며, 1923년부터 매년 10월 첫째 주일을 '전조선 절제주일'로 정하고 그날 헌금은 절제사업에 사용하게 했습니다.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 금주단연동맹 등 기독교 단체들이 조직되어 강연회와 가두선전 등을 펼치면서 금주와 금연은 한국 개신교를 상징하는 생활습관으로 확고해졌습니다. 김폴린은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연합회의 서기, 연합위원 등의 임원으로 절제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과 1930년에는 미감리회 여선교회 총회의 임원(부서기)으로도 활동하였습니다.

1931년에는 미국에 유학하여 일리노이 주 에반스톤의 내셔널대학에 입학하였다가 1933년에 졸업하였습니다. 그 후 귀국하여 1934년부터 기독교조선감리회 총리원 교육국 주일학교 간사로 일하면서, 주일학교의 계단공과 유치부와 유년부 교과서를 집필하였고, 1936년에 조직된 총리원 여자사업부의 서기로 선임되어 감리교의 여성사업을 지도하였습니다. 1939년 다시 미국에 유학하여 일리노이 주 노스웨스트대학에서 종교학을 전공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아오야마학원에서 수학하였습니다.

해방 후 1946년 서울 여자기독교청년회(YWCA) 총무로 선임되어 유치원, 공민학교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고, 전쟁 미망인을 위한 재봉 사업을 지도하는 한편 경기도 소사 지역의 부녀자들을 상대로 신용조합을 조직하였습니다. 1947년 그는 다시 미국으로 유학하여 내슈빌 주 스카리트여자대학에서 기독교교육을 전공하였고 계속해서 내슈빌의 피바디대학에서 일반 교육학을 연구한 후 귀국하였습니다.

이후로 서울의 감리교신학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여성교육과 기독교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신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강조하였던 그는 1955년 감리교 본부에서 활동 중이던 스탁튼 선교사와 서울 남산교회의 주일학교를 시찰한 후 주일학교의 혁신적인 개혁에 착수하였습니다. 김폴린과 남산교회 관계자와 교사들은 먼저 주일학교의 문제점을 찾아낸 후 교육위원회 구성, 교실 보수와 시설 확장, 교사 훈련, 교과과정과 시청각 교재 확보, 공개수업 등의 개혁 과정을 진행하였고 남산교회 주일학교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생 중심의 주일학교 활동은 "주일학교 활동"이란 제목의 한글과 영문으로 인쇄되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알려지게 하였습니다.

1949년 캐나다에서 열린 세계기독교학생대회에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1952년 미국 감리교 총회와 1958년 일본에서 열린 세계기독교교육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1958년 한국 여자기독교청년회 연합회 이사로 선출되었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연합회 교육부장(1957~65년), 기독교교육협회 공과작성위원, 〈새가정〉 편집위원, 기독교서회 편집위원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1990년 10월에 열린 감리교 '자치6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국 감리교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는 1930년 미 감리회 특선위원으로 선정되어 북 감리회와 남 감리회를 통합하여 '기독교조선감리회'를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하였고, 창립총회에 참석한 회원 중 유일한 생존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말년에도 정동제일교회 권사로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법」(1987), 「주님이 함께한 90년」(1989), 「한국 기독교 교육의 역사」(1992)를 집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이다가 백세를 두 달 앞둔 1996년 10월, 99세의 나이로 별세하였습니다.

결론

김폴린은 이어받은 신앙 유산을 증거하는 데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해결하

려고 노력했기에 전도인, 교육 실무자, 사회운동가, 교수 등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바탕은 언제나 기독교 신앙이었기에 겉모습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어받고 자신을 변화시킨 기독교 신앙을 잊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감리교의 평신도를 대표하는 인물로도 역할하여 1930년 남북감리교회가 하나 되어 한국 감리교회로 형성되는 데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그치지 않는 학문에의 열정으로 수많은 책을 저술하였고, 이러한 그의 활동으로 한국 기독교교육의 역사가 정리되었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우리교회 교육현장은 어떠한 지를 알아봅시다. 교회교육을 위해 남선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2. 우리가정의 신앙족보와 신앙유산을 찾아봅시다. 선조들이 남긴 사진, 글 등의 신앙적 유품들을 모아보고, 어떻게 하면 후손에게 신앙유산을 잘 전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찬　　송 : 505장(통 268장, 온 세상 위하여)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주기도문 : 다함께

3과

교육운동가
장용하

조용한 기도 : 다함께

찬　　송 : 91장(통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기　　도 : 맡은 이

성경봉독 : 히브리서 12:10~13

참고성경 : 이사야 40:1~5

요　　절 :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히브리서 12:12~13)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3월은 한민족이 일제의 식민통치를 부정하고 독립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거국적으로 3·1운동을 일으킨 달입니다. 한국교회와 교인들도 이 운동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적극 참여하여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전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독교는 외래종교라는 비판적 인식에서 민족종교라는 호의적 인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장용하'라는 인물을 살펴봅니다. 그는 학생으로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외국 공사관에 전달하는 비밀 임무를 맡았고, 만세시위에도 동참하였습니다. 독립운동에 관한 인쇄물을 만들어 일반인을 계몽하는 일도 계속하였습니다. 결국 이 일로 그는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본론

1900년 4월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난 장용하는 배재고등보통학교에서 3·1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학생입니다. 당시 배재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김진호 전도사는 '독립선언서'를 서울 시내의 각국 영사관에 전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배재에서 이 일을 도울 믿을만한 제자들을 골라냈습니다. 이렇게 부름 받은 장용하는 독립선언서를 3월 1일 중국영사관에 비밀리에 전달하고 그 날 오후 탑골공원에서 열린 만세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훗날 그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습니다.

> "3월 1일 정오 오포소리를 신호로 해서 중국영사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했다. 그리고 바로 광화문 쪽으로 와서 탑골공원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달려오는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날씨는 좋았고 따뜻해서 길거리에 있는 집 문 앞에는 부인네들이 물동이를 내다 놓아주어서 목마른 사람들은 물을 꿀꺽꿀꺽 마신다. 불란서영사관을 거쳐서 덕수궁을 들려 진고개로 들어섰다, 지금까지는 손을 대지 못하던 일본 경찰이 발동한다. 기마대가 와서 때리고 잡고 한다." (1970년)

당시 학급 반장이던 장용하는 이후 하숙집에서 동기생인 김기진 이봉순 염형우 등과 〈조선독립신문〉을 등사판으로 인쇄하여 민가에 배포하였습니다. 4월부터는 제호를 〈반도의 목탁〉으로 바꾸고 배포를 계속하다가 4

월 27일 동지들과 같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종로경찰서에 연행된 장용하는 주모자로 몰려 갖은 고문을 당하였고, 몸 전체가 부을 대로 부어서 독립운동 유인물 제작과 배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일로 그는 2년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출옥 후 복교하여 1921년 3월 배재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고, 일본에 건너가 아오야마학원 영어사범과에 입학하여 1925년 3월에 졸업하였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모교의 부름을 받고 4월에 배재고등보통학교 교사로 부임하였습니다.

그 후 교사로 근무하던 그는 신흥우 교장의 사임으로 1941년 7월 20일 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었고 1943년 2월 23일에 정식으로 제7대 배재중학교(1938년 일제의 개정조선교육령에 따라 교명 변경, 5년제) 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일제 말기 위기의 시대에 그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배재를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일제는 '만세학교'로 불리던 배재를 없애려 하였기에 학교를 지켜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식이 강한 그로서는 굴욕을 감수하면서 일제의 정책에 순응하는 것이 참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는 배재를 지켜냈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학교는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장용하 교장은 해방을 맞자 임시휴교를 선언하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후 가을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수업을 재개하였지만 학내 갈등과 혼란은 오히려 본격화되었습니다. 학교를 지키기 위해 친일 교육과 행사를 수용했던 교장과 교사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장용하 교장이 책임을 지고 9월 30일 물러났습니다.

교육계를 떠나 10년 동안 실업계에 종사하던 장용하는 1955년 12월 다시 배재의 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이후 장용하는 배재 교육을 현대화하는 공헌을 하였으며, 미 감리회 선교부로부터 정동의 배재학당 재산의 소유권을 정식으로 이양받고 '재단법인 배재학당' 설립인가를 받아내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재산 이양식은 1957년 10월 14일 미 감리회 해외 선교부 브럼보 총무를 비롯하여 배재 출신 이승만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장용하는 배재학당 설립자인 아펜젤러 선교사 때부터 꿈꾸어 왔던 배재대학 설립을 위한 기초도 마련하였습니다. '배재대학설립기성회'를 조직하여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13만 평의 대학 부지를 확보하였고 교사 기공식도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되던 배재대학의 꿈은 4·19 학생혁명이 일어나면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장용하는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5월 30일 교장직을 사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배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할 행정력이 필요했기에 "전교 전학년 전학생들의 열의적인 소원과 전체 교직원의 간곡한 희망과 이를 반영하는 학교관계 각계의 진정과 재단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장용하는 1961년 1월 16일 다시 교장에 부임하여 자신이 추진했던 일을 마무리할 기회를 얻었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학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임을 학교 신문 〈배재신문〉 35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 "작년 5월 우리의 뜻하지 않은 분규로 인하여 일시 학교를 떠나시게 되매 학교 발전에 많은 영향이 있었고, 다시 선생님을 모시게 됨으로써 우리에게는 다시 광명이 비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러 어려운 문제 처리에 있어 또 다시 불의의 사정으로 인하여 학교를 떠나시게 되니 우리들의 실망도 크려니와, 선생님께서 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보시기 전에 사임하시게 됨에 대하여 학생, 학부형, 동창들의 애석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장용하는 1968년 건국공로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1978년 9월 15일 별

세하였습니다. 감리교 장로로 정동제일교회와 자교교회에서 헌신하였습니다.

결론 장용하는 감리교의 개척 선교사 아펜젤러가 설립한 선교학교인 배재학당과 일생을 함께하였습니다. 학생 때에는 학생기독교청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3·1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옥고를 치르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일본에 유학하여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모교의 교사와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배재학당의 발전이란 꿈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특히 1957년에는 학교 재산의 소유권을 미 감리회 선교부로부터 넘겨받아 재단법인 배재학당을 설립하여 재정적 기초를 든든히 하였고, 교사를 건축하는 등 배재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정치적 격변으로 인해 그의 꿈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나라를 위해 교인들이 민족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실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 우리교회나 주변에서 나라사랑을 위해 헌신한 후손들을 찾아보고 그들을 기억하고 돌보기 위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찬　　송 : 323장(통 355장, 부름받아 나서 이 몸)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주기도문 : 다함께

4과

임시정부의 대부
이동녕

조용한 기도 : 다함께

찬　　송 : 376장(통 422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기　　도 : 맡은 이

성경봉독 : 빌립보서 4:10~13

참고성경 : 에스라 9:6~9

요　　절 :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립보서 4:12)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침략을 당하였지만 굴하지 않고 민족의 정통성을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신앙의 힘으로 민족운동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이동녕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동녕은 상동교회의 전덕기 목사를 만남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발견하

였고 이에 대한 사명도 잊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항일운동의 맨 앞에 서는 위험하고 긴장된 삶이었지만 신앙인으로서의 자신을 돌아보며 늘 회개하고 반성하던 분이었습니다.

본론

이동녕은 1869년 9월 충남 천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우 총명하여 10세에 사서삼경을 통달하였으며, 1892년 24세에 국가시험인 응제진사에 합격하였지만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1898년 독립협회 사건으로 이승만 등과 함께 투옥되어 옥고를 치렀습니다. 출옥 직후에는 〈제국신문〉에 예리한 시선으로 논설을 기고하여 애국계몽과 민권고취에 앞장섰습니다. "민족 자강의 방도" "나라를 구하는 길" 등의 논설은 독자들의 심금을 울려 개혁의 대열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또 나라의 장래가 관료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태로운 시각임을 지적하고 현대에는 주인공이 국민임을 명백히 규정하여 '국민참정권'을 적극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후 1904년 상동교회에 출석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는 전덕기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의 신앙과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덕기 목사는 그에게 신앙의 횃불을 밝혀준 고마운 분이었기에 자신보다 여섯 살이나 어린 전덕기 목사를 대할 때면 늘 존경해 마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동교회 엡웟청년회에 참석하며 상동파 민족운동가들과 독립운동에도 본격적으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1905년 11월 엡웟청년회 연합회가 상동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을사늑약의 무효화 운동에 나서기로 결의하자, 이동녕은 '죽음으로 독립을 지키다'라는 뜻으로 혈서를 쓰고 대한문 앞에 엎드려 조약 무효의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일본 헌병의 무지비한 진압으로 무산되었고 이동녕은 체포되어 두 달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출옥 후에는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북간도 용정촌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이상설 여준 정순만 박무림 등과 함께 용정에 우리나라 최초의 항일민족교육기관인 서전서숙을 설립하고 교포교육과 독립운동 인재양성에 힘썼습니다. 1907년 귀국하여 4월 경 전덕기 양기탁 이동휘 이갑 유동열 안창호 등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 중앙회 총서기로 활동하면서 자매단체인 청년학우회 총무로도 활약하였습니다. 또한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하였고, 상동교회에서 설립한 상동청년학원 교사로도 재직하였습니다.

1909년 봄 양기탁의 집에 모인 신민회 간부들은 국내에서 항일운동을 벌이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만주 지역에 제2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양성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이동녕 이회영 주진수 장유순 등이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 근거지를 물색하고 돌아왔습니다. 그해 10월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 이후 일제의 탄압이 거세지자 신민회는 해외와 국내로 나뉘어 투쟁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 1910년 말부터 1911년 초까지 그를 비롯한 이회영 형제들과 이상룡 김창환 여준 등 100여 명의 가족들이 서간도 요령성 유하현 삼원보 추가가에 망명하였습니다. 1911년 4월 항일독립단체이자 한인교포들의 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부속기관으로 신흥강습소를 열었습니다. 경학사는 이후 부민단, 한족회, 서로군정서로 발전하였고, 신흥강습소는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동녕은 신흥강습소 초대소장에 취임하여 독립군 양성과 교포교육에 전력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만주와 노령에서 이회영 이시영 황공달 문창범 황상규 이범윤 김좌진 박찬익 윤세복 김동삼 여준 등과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3·1운동 직전인 1919년 1월 무오독립선언서를 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수립의 주역으로 활약하였고 4월 11일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에 추대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수

립의 법적 절차를 원만히 밟았습니다. 국호는 대한민국, 연호는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이라 하였고 관제를 의결하고 나서 전문 10조로 된 임시헌장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동녕은 임시의정원을 통하여 5회에 걸쳐 법안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내각책임제인 국무총리제의 선거과정과 인선절차를 민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한국의 헌정사를 빛내고 있습니다. 곧 이어 국무총리 대리 내무총장이 되어 임시정부의 기초작업에 착수하였고, 정부의 기구가 확고해지자 그해 10월 '상업에 종사하는 동포에게'와 '남녀학생에게'란 제목의 밀서를 국내에 반포하였습니다.

이후 이동녕은 임시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우리나라 의회민주정치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실행을 진두지휘하였습니다. 그는 세 차례나 의정원 의장을 맡았고, 각부 총장, 국무총리, 국무령, 대통령대리, 주석 등을 역임하면서 맡겨진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침체의 늪에 빠져 갖은 곤경과 시련, 좌절, 방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진로 모색에 분주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이 시기 이동녕은 명실상부한 임정의 최고 영도자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하나도 동지들의 단결이요, 둘도 동포들의 단결이요, 셋도 모든 한민족의 대동단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힘을 한 데 뭉쳐 겨레와 나라 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해야 할 각오가 서야 하겠습니다." 라며 민족진영의 대동단결을 읍소하였습니다. 1935년 11월 항주에서 김구 등과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였고, 말년에도 노구를 이끌고 민족 역량의 집결을 위해 포고문을 몇 번씩 발표하는 등 높은 통일의지를 보였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자 임시정부의 외곽 연합단체인 '한국광복진선' 결성에 참가하여 항일전에 투신하였고, 1939년에는 김구와 전시내각을 구성하고 포고문을 발표하고 조국광복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민족진영의 대동단결과 광복운동의 일원화를 유언으로 남기고 1940년 3월 13일 사천성(四川省)에서 급성폐렴으로 별세하였습니다. 장례는 임시정부 국

장으로 거행되었고, 1948년 9월 유해를 봉환하여 서울 효창공원에 안장하였습니다. 1962년 건국공로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충청도 천안 목천의 생가를 보수 정비하여 개방하였고, 2010년에는 생가 건너편에 '석오이동녕기념관'도 설치하였습니다.

결론 김구 선생이 '우리 민족의 선각자이며 우리 혁명운동계의 도사(導師)이시다'고 말했듯이 이동녕은 상동교회 출신의 신앙 인맥으로 국내외 독립운동가들 위에 우뚝 솟은 분입니다. 그는 상동교회에 출석하면서 본격적인 민족운동에 나섰습니다. 그 후 국내활동이 어려워지자 북간도로 이주하여 독립을 위한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 동포들을 교육하고 독립군을 양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3·1운동 이후에는 임시정부수립을 주도하였고, 이후 20년 동안 임시정부의 법통을 수호하면서 조국광복을 이루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때로는 주석,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역할하면서 구국의 십자가를 졌던 임시정부의 실질적인 주역이었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독립운동에서 주도적으로 역할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2.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찬　　송 : 505장(통 268장, 온 세상 위하여)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주기도문 : 다함께

5과

애국 할머니
조신성

조용한 기도 : 다함께

찬　　송 : 305장(통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기　　도 : 맡은 이

성경봉독 : 마가복음 5:25~34

참고성경 : 마태복음 4:18~22

요　　절 :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마가복음 5:34)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5월의 인물은 조신성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비참한 생활을 그대로 감내해야 했던 이 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 만남으로 그의 삶은 완전하게 변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수동적인 삶에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삶으로 바뀌어 교회와 사회를 이끌고 지도하였습니다.

그의 주체적 삶은 처음에는 교육을 통한 애국활동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을 경험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투쟁방법으로 전환하고 일제에 저항하였습니다.

본론

조신성은 1867년 평북 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는 여유 있는 집안 형편 덕에 독선생을 두고 한문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부친이 사업에 실패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불우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16세에 시집을 갔으나 3년이 못되어 남편이 죽고, 시집 식구들의 학대가 도를 넘어서자 결국 이를 참지 못하고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1897년경 의주교회에 출석하면서 장로교 선교사 베어드를 만났고, 그의 도움으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베어드 선교사의 주선으로 일본에 유학하여 시모노세키의 바이코여학교와 요코하마 사범학교 심상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01년에 이화학당 교사로 부임해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민족정신을 주입시키는 데 헌신하였습니다. 학생들과 매일 같은 시간에 수업을 중단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모임을 가졌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본이 한국의 주권을 강탈한 때였고, 교회와 학교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시위나 집회가 끊이지 않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회를 열었을 뿐 아니라 88명의 학생들을 이끌고 대한문 앞에 가서 엎드려 통곡하며 국권상실의 슬픔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908년에는 평양으로 거처를 옮겨 여메레의 후원으로 진명여학교를 설립하고 여성교육을 통한 국권회복에 앞장섰습니다. 친히 돌을 머리에 이고 날라 학교담을 쌓는 등 정성들여 가꾸던 학교는 합방 이후 일제의 잔악한 방해공작에 부딪혀 남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는 대동강 부근 농촌교회에 전도사로 나가 전도하면서 여성계몽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3·1운동을 경험하면서 항일투쟁방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비폭력·무저항주의로 저항하던 만세시위가 일제의 잔

혹한 무력탄압 앞에 너무나 힘없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현실을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투쟁방법을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김구 안창호 등과 비밀리에 연락을 하면서, 자신이 돌보던 평남영원 덕천 맹산 지역의 교회를 돌아다니며 군자금을 모금해 상해로 보내었습니다. 1920년 11월에는 만주 유하현에 본무를 둔 '대한독립청년단연합회'의 영원 덕천 맹산지구 지하조직인 '맹산독립단' 창설에 참여하였습니다. 맹산독립단은 맹산군 선유봉 호랑이굴에 본부를 두고 인쇄기 3대와 활자 등을 사들여 사형선고문과 협박장, 경고문 등을 인쇄해 일본관헌과 친일파들에게 보냈으며 재산가로부터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는 한편 우편물호송대를 습격해 탈취한 송금을 상해임시정부에 보내는 단체였습니다. 그도 가슴에다 육혈포, 탄환, 다이너마이트를 품고 다녔으며, 수시로 변장을 해가며 깊은 산속을 며칠씩 헤매고 생식으로 버티는 등 갖은 고생을 다해야 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18일에는 독립운동가들과 영원으로 가던 중 일본인 순사 3명의 불심검문을 받아 체포될 위험에 처하자 그 중 무장한 순사를 끌어안고 뒹굴어 독립운동가들을 도피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영원경찰서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금되어 유치되어 있던 중 그를 감시하던 조선인 순사 나신택 예준기 두 명을 설득하여 이들로 하여금 맹산독립단에 가입케 하였습니다.

1921년 10월, 상기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형기를 마치고 출옥하던 날 맹산독립단 관련사건에 연루된 것이 탄로나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조신성을 비롯한 19명이 연루되어 재판을 받은 '맹산 선유봉 호랑이굴 독립청년단사건'은 당시 동아일보에 자세히 보도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습니다.

평양형무소에서는 '대한애국부인회사건'으로 체포된 최매지 박승일 이성수 최영보 안신행 등과 같은 방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에 감방 교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주

일만 되면 변기통 위에 올라서서 창살 밖으로 보이는 교회 종탑을 바라보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1927년 5월 27일 신간회 자매조직인 '근우회'가 조직되자 조신성은 60세의 나이로 평양지회의 회원 확보 및 조직에 나서 1928년 1월 30일 평양지회를 조직하였고, 같은 해 7월에는 임시전국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평양지회장으로 선임된 그는 평양지회 창립기념식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강단을 치며 다음과 같은 개회사를 하였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노나니'가 글쎄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를 요 꼬라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하세 일하세 젊어서 일하세. 늙기 전에 빨리 일하세'하는 정신과 노력으로 우리 민족이 합심해 나가야 소원이 성취됩니다."

근우회 평양지회는 근우회 회관을 설립하고, 여성들에게 경제 의식을 일깨우고 실업여성의 직업 확보를 위한 실행사업으로 속옷공장 설립을 기획하는 등 추상적인 여성운동이 아닌 현실적인 여성운동을 기획하고 실천하였습니다. 1930년경 근우회 본부가 해체된 이후에도 평양지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후 야학 활동에 참여하였고, 무산아동을 위한 학교도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해방 후 신탁통치 문제로 한창 시끄럽던 1945년 11월 27일 '북조선여성동맹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제시하는 공산당의 제의를 거부하고 월남하여 서울에 정착하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대한부인회 부총재, 재남 조선민주당 고문 등의 직분을 맡아 해방 후 여성 민족운동의 방향을 잡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부산으로 피난 가서 가난하게 살다가 신망애 양로원에서 1953년 5월 5일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1991년 애국장이 추서되었고,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결론 조신성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는 초기의 개인적 가정적인 불행을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서 극복하였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그는 이후 민족운동에 헌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교육을 통한 국권회복운동에 참여하여 후학들을 깨우쳤습니다.

그러나 교육활동의 한계를 절감한 후부터는 일제에 저항하는 직접적인 투쟁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독립군의 군자금을 마련하거나 총을 드는 무장투쟁도 마다하지 않았고, 근우회 등의 조직을 통한 현실적인 경제적 실천활동도 지도하였습니다. 이 같은 활동으로 끊임없이 고난을 당했지만 독립운동을 향한 희망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개인적인 불행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2.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찬　　송 : 333장(통 381장, 충성하라 죽도록)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주기도문 : 다함께

6과

교육운동가 강매

조용한 기도 : 다함께

찬　　송 : 321장(통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기　　도 : 맡은 이

성경봉독 : 디모데전서 4:6~11

참고성경 : 에스겔 22:17~22

요　　절 :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디모데전서 4:6)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6월의 인물은 강매입니다. 그는 교육자로 활동하면서 학생·청년운동과 문서운동에 평생을 바친 인물입니다. 배움의 중요성을 깨달은 후 스스로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는 모범을 보였고 이를 전하는 데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 역할하면서 교회개혁을 이끌었고, 한국교회의 역사의식이 빈약함을 안타깝게 여겨 교회역

사를 정리하는 일에도 중요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본론 강매는 1878년 충남 천안의 청렴한 선비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25세까지 고향에서 한학을 수학하다가 1904년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정동제일교회의 최병헌 목사와 상동교회의 전덕기 목사 등과 접촉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 정동제일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에 충격을 받은 그는 배워야 국권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먼저 서울 양잠학교를 졸업하였고, 1907년에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잡는다고 하면서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대학 법과와 고등사범 수법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11년 귀국하는 길로 배재학당 교사로 취임하여 교무주임, 부교장 등을 역임하며 20여 년 간 봉직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민족정신을 교육하는 데 전념하였으며, 교육태도가 매우 진실하여 학생들뿐 아니라 동료 교사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1935년 6월 배재학교 창립 50주년 기념식 때에는 근속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황성기독교청년회의 초창기 회원으로서 1914년 조선기독교청년회연합회 제1회 전국대회에 참석하여 전국연합회를 창설한 것을 비롯해 학생YMCA의 지도자, 하령회의 강사, YMCA 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는 정동제일교회의 충실한 임원으로 봉사했는데, 특히 1914년 11월에 있었던 현순 목사의 부흥회에서 크게 감화를 받아 거듭나는 '믿음의 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15년 7월에 그는 〈정동교회 30년사〉를 저술하였습니다. 그는 한국교회의 역사가 모호하고 "교회들의 실력이 아직도 박약하여 반석 위에 건축하지 못하고 재산은 외국선교사들에게 의뢰함이 태반이요 교우들은 정신상 연락이 좋지 못함"을 개탄하여 우선 정동제일교회의 연혁부터 집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목사들의 증

언을 듣고 선교회 일기를 참조하여 집필을 하였습니다. 〈정동교회 30년사〉는 한국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개체교회사일 뿐 아니라, 정동제일교회와 배재학당, 이화학당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어 한국교회 초기 활동에 관한 귀한 자료로 평가받습니다. 1918년 5월 28~30일 최병헌 감리사의 사회로 피어선성경학원에서 열린 경성지방회에서 정동교회 전도사(장로)로 임명되어 평신도 지도자로서 활동하였습니다.

한편 1920년대에 들어와 한국교회는 새로운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일부 지식인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특히 사회주의자들의 기독교 비판은 교회를 공격하는 반기독교운동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비판과 공세에 대해 그들의 주장을 무시하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기독교인들도 있었고, 그들의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비판을 계기로 교회가 자성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때 정동제일교회에서도 교회의 반성과 혁신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강매를 비롯한 신흥우, 조병옥 등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기독신보〉(1925. 12. 30)에 발표한 글을 통해 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선은 특히 미국의 교파를 계승한 듯한데, 복음의 진리 즉 영적으로 신생하는 도리를 수수함보다도 그의 조직 또는 제도 하에 신음하는 듯이 보인다. 교회를 조직하는 것이 성결, 구속, 회개, 신생하는 도리보다 전제조건이 되는 듯이 보인다. 영적 깨달음이 있은 후에 회개가 있고, 회개가 있은 후에 신생이 있고, 신생이 있은 후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은 후에 비로소 교회가 있을 것이니, … 교회는 즉 하나님이 아니오, 교회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 중의 하나인 까닭이다. 우리가 만일 교회의 조직 또는 제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몰각한다 하면 이는 분명히 우상숭배일 것이다."

강매는 배재학당 외에 상동청년학원에서도 가르쳤습니다. 상동청년학원은 1904년 10월 상동감리교회 전덕기 목사가 설립한 중등교육기관입니다. 설립 목적은 "하나님 공경하는 참 도로서 근본을 삼아 청년으로 말하여도 벼슬이나 월급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에 참 유익한 일꾼이 되기를 작정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초대 교장을 맡았던 이승만은 "나라가 나라 노릇하자면 사람이 먼저 사람 노릇을 하게 되어야 하겠고 사람이 먼저 사람 노릇하자면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으니 대저 학교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오 또한 나라를 만드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학교 설립의 취지를 말하였습니다. 교사로는 전덕기 주시경 장도빈 최남선 남궁억 현순 조성환 이필주 이승만 유일선 고주연 박재욱 장지연 오의선 등 쟁쟁한 민족운동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든 교과목을 통해 지식은 물론 민족혼을 불어넣는 교육을 시켰기에 이 학교를 통해 교회와 나라를 위한 일꾼이 배출되었습니다. 강매도 이 학교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여 야간에 강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전덕기 목사가 죽고 1914년 상동청년학원이 운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자 밤 시간을 얻게 된 강매는 글 쓰는 일과 잡지를 발간하는 데 적극 나섭니다. 1914년 10월에는 월간지 〈공도〉를 발간하였습니다. 〈공도〉는 종교·교육·사회개선을 삼대 강령으로 정의 공도에 기본하여 인지의 개발과 사회 개선을 목표로 한 잡지로 5호까지 발간하였습니다. 1919년 1월에는 조선민족을 의미하는 〈선민〉이라는 월간지를 발간하였습니다. 또 한때 직접 언론계에 뛰어들어 〈중앙일보〉와 〈시대일보〉 등의 편집국장을 역임하였고, 「한문문법제요」, 「조선문법제요」, 「중등조선어작문」, 「법률요강」, 「잘 뽑은 조선말과 글의 본」(김진호와 공저) 등도 저술하였습니다.

1930년대 후반기에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북간도로 건너가 연길농업실업학교 교장으로 5 년간 시무하면서 민족교육에 종사하였습니다. 1941년 6월 별세하자 북간도 동포들은 그를 사회장으로 모셨습니다.

결론 강매는 교육자와 교회 평신도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기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은 인물이었습니다. 배재학당에서는 한글을 가르치면서 민족혼인 글의 중요성과 함께 민족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개혁에 나서면서 한국교인들이 선교사에게 의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주체적 자립의식을 가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강매는 교회역사의 중요성을 깨달아 정동제일교회 역사뿐 아니라 선교 초기의 역사를 정리한 선구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와 에스페란토어에도 만만찮은 실력을 자랑하였으며, 시와 수필을 쓰는 문학인이면서, 일본에서 정식으로 법학을 전공한 법학도이기도 하였으니 그야말로 박학한 지식인으로 손꼽히는 존재였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우리교회의 역사를 알아보고, 교회의 전통과 유산을 잇기 위해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를 찾아봅시다.

2. 우리교회의 학생회와 청년회를 위해 남선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찬　　송 : 595장(통 372장, 나 맡은 본분은)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주기도문 : 다함께

7과

헤이그 밀사
이준

조용한 기도 : 다함께

찬　　송 : 488장(통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기　　도 : 맡은 이

성경봉독 : 갈라디아서 6:6~10

참고성경 : 마태복음 10:35~38

요　　절 :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9)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7월의 인물은 헤이그 밀사로 잘 알려진 이준 열사입니다. 그의 생애 초기에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전승받은 가풍과 전통적인 공부를 통해 유교적 세계관에 충실하였고 소극적으로 개화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04년 무렵부터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일제의 본질을 간파하게 되면서 여러 단체를 조직하여 항일애국계몽운동에 나섰

고, 또 상동교회에 출석하면서 전덕기 목사 등을 통해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상동파 민족주의자들과 교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론 이준은 1859년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학을 공부하였고 실력도 갖추었지만 유생들의 시기와 방해로 관직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경학원을 설립하고 인재 양성에 힘을 다하면서 정세를 관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5세 무렵부터 종래의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한국의 사회변화에 새롭게 대응합니다. 마침 당시에 개화파 내각이 조직되고 새로운 행정 제도로 사법권이 독립되면서 1895년 37세의 나이로 신설된 법관양성소에 들어갔습니다. 6개월 만에 제1기로 졸업하고, 한성재판소 검사보 주임 6등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직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정 대관들의 비행과 불법을 적발하고 숙청한다는 이유로 고관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1개월 만에 파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대학의 전신인 동경전문학교에서 법학을 2년 동안 공부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서구 근대법학의 수용자가 되었습니다.

1898년에 귀국한 이준은 관직에 나가기보다는 국가를 바로잡기 위해 '독립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만민공동회'의 가두연설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독립협회'가 해산당하여 그의 활동은 2~3개월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1902년에는 민영환 이동휘 이상재 등과 비밀결사 개혁당을 조직하는 데 관계하였고, 1904년 러일전쟁 후에는 '대한보안회' '대한협동회' '국민교육회' 등을 조직하여 국민계몽에 힘쓰면서 황무지 개척권을 얻으려는 일제의 음모를 폭로하는 활동을 나섰습니다. 또 친일조직인 '일진회'를 배척하기 위해 1904년 12월 '공진회'를 조직하고 회장으로 선출되어 통상회와 특별회를 매주 토요일에 가지면서 회원

계몽과 정부에 대한 시정개선활동을 하였습니다. 1904년 12월 24일에 타락한 정부의 대신을 성토하다가 체포되어 황해도 철도에 유배되었다가 황제의 특사로 1개월 만에 방면되었습니다. 그는 1905년 5월에는 애국계몽운동을 선도한 '헌정연구회'를 조직하고 부회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헌정연구회'는 입헌정치체제에 대한 연구단체로 이후 조직되는 정치·사회단체나 학회의 선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체포되어 옥살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준은 고난당하는 시기를 성경을 탐독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양반들이 집단적으로 개종하고 풀려나 교회에 출석하던 무렵에 이원긍의 인도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연동교회에 출석하였고 집사 직분도 받았지만 교회를 정치생활의 피난처 정도로 생각하던 형식적인 교인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유배기간을 통해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피'에 대한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905년 초에는 많은 민족운동가들이 모인 상동교회로 교적을 옮겼습니다. 그는 상동교회에서 전덕기 목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민족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주일이면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였고 모든 생활에서 기독교의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1905년 11월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기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감리교 엡웟청년회 전국연합회는 상동교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교회에서 참여한 청년들은 '을사늑약' 무효상소운동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때 이준은 상동교회 엡웟청년회 대표로 참석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무효상소를 위해 도끼를 어깨에 메고 대한문 앞으로 나가 죽음을 각오하고 상소를 올리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일본 경찰에 의해 무참히 저지당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1907년 6월 네덜란드의 수도 헤이그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열

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전덕기 목사는 여러 동지들과의 의논을 통해 이 회의에 고종황제의 특사를 파견하여 을사늑약은 일제의 강압에 의한 것이며 결코 한국 황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 조약을 무효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준 이상설 이위종으로 특사를 선정하고 4월 20일에는 고종의 신임장을 비밀리에 받아냈습니다. 이 신임장은 이준에게 전달되었고 전덕기 목사는 먼 길을 떠나는 그를 위해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날 이준은 '대한자강회'의 초청강연회에서 청년들에게 민족의 생존을 위해 분발할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며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항상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나라라 하는 것은 땅덩이가 크고 사람이 많은 것보다 위대한 인물이 나는 나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땅덩이가 손바닥만 하고 사람이 아주 적은 나라라 할지라도 이러한 나라는 큰 나라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준은 부산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이상설과 합류하였고, 이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위종을 만난 후 베를린과 브뤼셀을 거쳐 6월 25일 헤이그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준 등 세 특사는 시내 바겐스트라트가 124번지에 소재한 호텔에 투숙하여 태극기를 내걸고 공개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만국평화회의에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려 했으나 일본의 방해와 각국 대표들의 냉담한 태도로 회의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실정을 알리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비분한 이준은 7월 14일 49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하여 헤이그의 묘지에 묻혔습니다.

결론 이준은 정당한 법의 행사도 나라의 주권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체험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그는 여러 단체들을 통해 민족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권회복을 위한 실천행위로 기꺼이 헤이그 밀사가 되었습니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고, 그의 유해도 1963년 10월 서울 수유리 묘지로 이장되었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 2007년 그의 순국 100주년을 맞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인접한 도시인 레이드스헨담에 '이준 열사 순국 100주기 기념교회'를 세우고 그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기독교 신앙과 민족의식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 휴가철에 교회나 교인과 관련된 유적지를 찾아보고 되새겨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찬　　송 : 500장(통 258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주기도문 : 다함께

8과

여성독립운동가 오신도

조용한 기도 : 다함께

찬　　송 : 563장(통 411장, 예수 사랑하심을)

기　　도 : 맡은 이

성경봉독 : 디모데후서 4:1~8

참고성경 : 출애굽기 3:1~5

요　　절 :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디모데후서 4:2)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8월에 생각해 볼 인물은 독립운동가 손정도 목사의 어머니 오신도입니다. 그는 평범한 유교 가정의 주부로 살아가다가 아들 때문에 큰 변화를 겪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되었고, 전도부인이 되어 적극적인 전도생활에 헌신하였습니다. 또 아들이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하자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에 헌신합니다.

본론

오신도는 1860년 평남 강서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성년이 된 후 강서군 증산면 오흥리에 사는 유생 손형준과 결혼하였고,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1902년 맏아들 손정도가 관리시험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평범한 조선 전통 유교 집안의 안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손정도는 관리시험을 치르기 위해 평양으로 가던 중에 한 집에 유숙합니다. 그날 밤 어느 목사를 만나 그를 통해 신학문과 기독교에 대해 설명을 듣고 몸이 떨리는 감동을 체험하고 곧바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손정도는 다음날 아침 자신의 상투를 자르고 집으로 돌아와 집에 있던 사당을 때려 부쉈습니다. 아버지와 친척들은 그를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이라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오신도는 아들 손정도를 도와 그가 평양으로 가도록 주선하였고, 며느리 박신일에게도 남편을 찾아 나서라고 하였습니다. 손정도는 무어 선교사의 도움으로 숭실중학교에 진학하였고, 1907년 평양을 휩쓴 대부흥운동에 자극받아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하여 서울의 감리교 협성신학교에서 공부한 후 1911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신도가 언제부터 기독교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취적인 아들처럼 한 번 기독교인이 되자 그는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인 전도생활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전도부인으로 임명 받아 평양 인근의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루퍼스 부인, 로빈스, 루퍼스, 노블 부인 등을 도우면서 주로 평양 강서 진남포 증산 봉산 등지에서 활약하였습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그의 활동은 동료 선교사들의 감탄을 자아낼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루퍼스 선교사는 1910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우리 전도부인 오신도의 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9개 성경반을 통해 1,327명을 가르쳤으며 봄 가을로 평양에서 열리는 사경회와 에스티 양이 주관하는 정규 성경반도 참석하였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104개 마을, 2,810리를 돌며 전도하였습니다. 한 번은 강도를 만났는데 돈을 요구하였답니다. 그녀는 돈을 주는 대신 그에게 전도할 기회를 얻었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바울의 말씀을 성취한 셈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그의 활동은 1912년 중단되었습니다. 겉으로의 이유는 둘째 아들의 죽음과 남편의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만주에서 활동하던 맏아들 손정도 목사 때문이었습니다. 손정도 목사는 일제의 조작으로 '가츠라 암살음모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고, 북간도 무관학교 설립기금 모금운동 혐의까지 받아 전남 진도에 유배되는 악형을 겪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모친도 일경의 감시를 받아 자의반 타의반으로 전도부인직을 내놓고 말았습니다.

아들 손정도는 1 년간의 진도 유배생활을 마치고 정동제일교회에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목회를 하다가 1918년 말 교회를 사임하고 상해로 망명해 3·1운동을 해외에서 추진하였고, 3·1운동 직후 의정원 의장 등 상해임시정부 요인으로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는 임시정부의 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독립운동이 여러 방면에서 추진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애국부인회'였습니다. 이같은 애국부인회를 평양에 조직하기 위해 오신도는 6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면에 나섰습니다.

평양에서의 애국부인회는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감리교와 장로교 양 교파의 교회와, 또 교회가 운영하던 학교와 병원이 조직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양의 애국부인회는 1919년 6월 감리교와 장

로교 양 교파에서 별개의 조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감리교의 애국부인회는 남산현교회 교인이며 기홀병원 직원으로 일하던 박승일을 비롯하여 손정도 목사의 딸인 손진실 이성실 최신덕 들이 주도하여 조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감리교와 장로교의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였으나 같은 목적의 같은 운동체이기에 연합하여 하나의 운동체로 활동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그해 11월 상순 평양 신양리에 있는 숭의여학교 출신 김경희의 집에서 '대한애국부인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이때 오신도는 이미 60이 된 고령이었으나 총재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전도부인 시절 복음 들고 찾아다니던 평남 일대를 순회하며 군자금을 모금하고 조직을 확대시켜 나갔고, 헌금은 상해 임시정부로 전달하였습니다. 체포되기까지 1년 동안 보낸 헌금은 2,417원에 달했으며 이 중 오신도 자신이 모금한 것만도 2백 원이었습니다. 애국부인회는 여성의 몸으로 독립운동 현장에 투신하여 남성 못지않은 활약을 보였다는 점 외에 대다수 남성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었거나 망명 혹은 피신함으로써 생겨난 독립운동 공백을 교회여성들이 메웠다는 점, 그리고 감리교와 장로교 여성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 독립운동 기구를 조직하고 활동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여성독립운동 단체입니다.

그러나 이 조직은 1920년 10월에 일경에 탄로나 회원들이 체포되고 중단되었습니다. 평양 강서 진남포 증산 함종에 검거선풍이 일어 도피한 사람을 제외하고도 50여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오신도도 체포되었고 혹독한 심문과 조사 과정을 거친 뒤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출옥 후 그는 며느리 박신일과 손정도가 있는 중국 길림으로 망명하였습니다. 당시 손정도 목사는 임시정부를 떠나 만주 길림으로 옮겨 길림한인교회를 담임하는 한편 만주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무장독립단체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독립운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오신도는 이곳에서

아들을 뒷바라지하고, 교회를 돕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손정도 목사가 과로로 건강을 헤쳐 교회를 사임하면서 오신도는 귀국하여 평양과 강서군 증산의 고향집에 머물다가 1933년 9월 5일 74세로 별세하였습니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습니다.

결론 오신도는 목회자이며 독립운동가인 손정도 목사를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을 보였습니다. 손정도를 변화시킨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 나섰습니다. 또 손정도 목사가 독립운동에 헌신하자 그도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 아들에 그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자녀를 신앙으로 키워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2. 신앙적 열심이 사회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찬　　송 : 496장(통 260장, 새벽부터 우리)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주기도문 : 다함께

9과

20세기 종로의 성자
현동완

조용한 기도 : 다함께

찬　　송 : 294장(통 416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기　　도 : 맡은 이

성경봉독 : 마태복음 5:3~12

참고성경 : 요한복음 21:15~17

요　　절 :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9)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9월의 인물은 현동완입니다. 그는 전 생애를 YMCA와 더불어 산 기독교 청년운동가입니다. 간사로 부임한 이후 부총무, 주임간사, 총무 등의 직책을 맡으면서 죽을 때까지 40 년간을 YMCA와 함께하였습니다. 특히 해방 후 YMCA을 재건하고 6·25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는 중요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의 YMCA의 사회활동 방향과 다른 경건주의에 바탕을 둔 활동을 하였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활동으로 YMCA는 또 다른 방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본론

현동완은 1899년 서울 마포구 현석동에서 태어났습니다. 1916년 보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고, 1918년 서울YMCA 체육부 간사로 부임하면서 이후 별세하기까지 평생을 YMCA운동에 헌신하였습니다.

1920년 6월 신흥우는 윤치호의 뒤를 이어 서울YMCA 총무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일본YMCA에 예속되어 있던 한국YMCA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실무진을 지도층 인사들로 구성하였고, 실무자를 해외에 파견하여 훈련시키는 인재양성에도 나섰습니다. 현동완은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브랜드YMCA에 파견되었습니다. 당시 클리브랜드청년회는 무디 이후 YMCA 전도운동의 선봉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4년 동안 수습기간을 가져 장차 YMCA 지도력의 근본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현동완은 퀘이커교도들과 깊이 사귀게 되었고, 멀리 벽지의 수도원을 즐겨 찾았습니다. 이로써 그의 인생관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경건주의 기조의 사회적 관심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현동완은 1926년에 귀국하였습니다. 당시가 "복음의 사회화운동"이 한참 진행되던 때였지만 그는 이와 대조되는 경건주의 운동을 태동시켰습니다. 곧 YMCA 소년들로 구성된 '평화구락부'(Peace-makers' Club, PMC)라는 클럽을 창설한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정기집회를 갖고 평화의 이름 아래 개인수양과 사회봉사의 훈련을 받도록 했는데, 수련내용은 금요기도회(기독교 신앙지도), 등산(호연지기를 기른다), 도보여행(인생경험을 쌓는다), 근로봉사(매 주일 한 가지씩 실천), 구제활동(크리스마스 동정메달 판매) 등이었습니다. 매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1월 11일에는 평화기념식으로 모여 "평화의 뿌리는 마음에 심고 평화의 열매는 몸으로 거두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평화의 정신을 기리는 대규모 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또 연말에는 YMCA 본관 로비에 "동지야, 빈민을 위하야 3 일간 노상에서 걸인이 되자"라는 격문을 내걸고 메달(1개 5전)을 팔아 그 수입으로 구제활동을 하였습니다. 1930년 보고에 의하면 800여 원을 모아 서울인근 극빈자 400여 호에 전달하였습니다.

1932년에는 서울YMCA의 부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진행되던 평화주의적 사회봉사활동을 "참"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로써 참 운동은 전 연령층을 망라한 서울YMCA의 가장 역점적인 종합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의 간청으로 시작된 유영모의 '금요강화'는 이 운동을 정신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의 '동정메달' 구제활동은 지방으로 확대되면서 참 운동이 점차 YMCA의 또 하나의 지도노선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35년 5월 현동완은 한국YMCA연합회의 순회간사, 실질적 총무가 되었습니다. 현동완은 한국YMCA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는 원산 함흥 등 각 지방을 출장하여 지방지도자들과 수습책을 협의하였습니다. 이듬해 1월에는 기독교청년회 대표위원 수양회를 열어, 일체의 사회활동은 중지하고 회원의 종교적 수련과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와 불우한 이를 위한 봉사활동에 역점을 두는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전국적으로 "참" 운동을 전개하였고 클럽활동 위주의 소년사업을 장려하여 봉사와 구제사업을 폈으며, 삼동회 등 구제사업을 운동화하여 새 활로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비전을 결여한 수도지향적 경건주의만으로는 청년회의 침체를 극복할 수 없었으며 이내 청년회 지도층의 비평적 저항에 부딪쳤습니다. 또한 극도의 불안을 자아내던 정치 경제적 상황 속에서 일반사회의 호응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1937년 7월 연합회 순회간사직을 사임하였고, 이후 함북지방에 은둔하였습니다.

해방 후 미군정청 교통부장 고문으로 일했던 그는 1948년 6월 재건된 서울YMCA 총무로 취임하였습니다. 그의 취임은 서울YMCA의 정통성 확립과 연결이라는 사실에서 중대한 의미는 갖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각부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갔으며 특히 종교부와 소년부 활동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종교부는 "복음운동의 대중화"라는 기치 아래 매 일요일 3회의 신앙집회(유영모 한에녹 함석헌)를 열어 많은 청중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고, 소년부는 신앙운동 보이스카웃운동 소년평화운동 삼각소년회 어린이합창단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6·25 전쟁으로 부산으로 피난하였다가 1952년 서울로 복귀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부랑 범죄 소년을 위한 삼동소년시(YMCA Boys' Town), 윤락여성 선도를 위한 삼동부녀회관, 무산아동을 위한 무료중학교 등 복지사업을 서울YMCA의 주축프로그램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삼동소년시는 전쟁고아나 유랑하는 소년들을 양육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현동완은 소년들의 어버지로 역할하며 "오며 감사, 가며 감사, 있어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울YMCA 회관재건과 이념대립에 대한 책임을 지고 1957년 3월 총무직을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59년 12월부터 난지도 삼동소년시 단칸방에서 오랜 투병생활을 하다가 명예회원으로 추대되는 서울YMCA 60주년기념식(1963.10.28)을 사흘 앞두고 별세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삼동소년시 사업에 참여했던 황광은 목사는 그가 "20세기 종로의 성자" 였으며, "분명 그는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었다. 그것도 천당 속에 높이 앉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 주님께 미친 것이다. 그러기에 그의 생애는 YMCA라는 봉사단체에서 시작되어 병으로 눕기 수개월 전까지 40 년간을 청소년지도에 그 몸을 바친 것이다." 라고 추모하였습니다.

결론 현동완은 YMCA을 사랑하고 YMCA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YMCA를 통해 경건주의에 근거한 평화운동과 참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운동으로, 회원에 대한 종교적 수련과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와 불우한 이를 위한 봉사활동에 역점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활동으로 YMCA운동에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제 말기와 해방 후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에 YMCA의 전통을 사수하는 데 힘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6·25전쟁 이후에는 전쟁고아와 부녀자들을 위한 구호사업에 주력하여 많은 공헌을 남겼기에 '고아의 아버지' 혹은 '20세기의 성자'로 불렸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평화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봅시다.
2. 기독교 영성과 사회봉사 활동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찬　　송 : 413장(통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주기도문 : 다함께

10과

하얼빈 사건의 공모자 우덕순

조용한 기도 : 다함께

찬　　송 : 368장(통 486장, 주 예수여 은혜를)

기　　도 : 맡은 이

성경봉독 : 로마서 8:18~30

참고성경 : 하박국 2:12~14

요　　절 :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로마서 8:21)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10월의 인물은 우덕순(혹은 우연준)입니다. 그는 상동교회에 출석하면서 민족의식을 지니게 되었고, 을사늑약 이후에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일제에 직접 대항하는 무장투쟁의 길에 나섰습니다. 이런 같은 투쟁 속에서 안중근을 만나고, 서로 의기투합하여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안중근이 저격에 성공하여 이름

을 날리고 우덕순은 잊혀졌지만 이 사건은 우덕순과 안중근이 함께 추진한 사건이었습니다.

본론

우덕순은 1876년 충북 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4~5세 때 서울로 올라와 동대문 안 양사동(종로6가)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는 서당에서 천자문, 동몽선습, 통감 등을 수학한 후 아버지가 운영하던 잡화상을 이어받아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생활을 하던 그는 기독교에 입문하면서 민족운동가로 변합니다.

우덕순은 1904년경 상동교회에 출석하면서 새로운 사상을 갖습니다. 당시 상동교회에는 전덕기 목사의 지도를 받는 상동파 민족주의자들이 대거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들과 교류하며 민족정신을 기르고, 또 상동청년회 활동을 통해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민족운동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우덕순은 국내에서는 활동할 여지가 거의 없음을 깨닫고 해외로 망명해 국권회복 투쟁을 결심하였습니다. 그해 겨울 그는 칠순의 노모와 처자식을 남겨 두고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동지들의 재정 지원으로 1906년 계동학교를 설립하고 조국광복을 위한 청년교육 사업에 헌신하는 한편, 전 북간도 관리사 이범윤과 연락하여 의병 1천여 명을 모아 러시아령 연추에 훈련소를 만들어 항일 전투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908년 여름에는 300명의 정예용사와 국내에 잠입하여 함경북도 경흥·회령 지방의 일본군영을 습격하다가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7년형을 선고받고 경흥감옥에서 복역하던 중 탈출하여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갔습니다. 1909년 봄에는 연추에서 안중근 김기열과 함께 단지동맹을 결성하여 결사보국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연준'으로 개명하고 담배행상을 하며 블라디보스토크 각지를 왕래하면서 한국국민회가 독립의식

을 고취하기 위해 발행한 신문 〈대동공보〉의 모금 및 동지간의 연락을 담당했습니다.

그해 10월 20일 우덕순과 안중근은 대동공보사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재무상 코코프체프와 회담하기 위해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토를 암살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날 21일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한 우덕순과 안중근은 중간에서 유동하를 통역으로 합류시키고, 22일 밤 9시에 하얼빈에 도착해서 김성박의 집에서 유숙하였습니다. 23일에는 우덕순 안중근 유동하 3인이 사진을 찍었고, 마지막으로 조도선을 합류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얼빈 김성박의 집에서 그와 안중근은 함께 결의를 다지는 시를 지었습니다. 먼저 안중근이 9언 절귀 한시 '장부가'(丈夫歌)를 지어 불렀고, 이어서 우덕순이 한글 4.4조 민요 형태의 시조 '보구가'(報仇歌, 원수를 갚는 노래)로 다음과 같이 화답하였는데 이 시에서 그의 민족주의 신앙의 실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만났도다 만났도다 원수너를 만났도다 / 너를한번 만나고자 일평생에 원했지만 / 하상견지(何相見之) 만야(晩也)런고 너를한번 만나려고 / 수륙으로 기만리를 혹은윤선 혹은화차 / 천신만고 거듭하여 로청양지(露淸兩地) 지날때에 / 앉을때나 섰을때나 앙천하고 기도하길 / 살피소서 살피소서 주예수여 살피소서 / 동반도의 대제국을 내원대로 구하소서 / 오호간악(嗚呼奸惡) 이도적아 아등민족 이천만을 /멸망까지 시켜놓고 금수강산 삼천리를 / 소리없이 뺏노라고 궁흉참악(窮兇慘惡) 저수단을 / (중략) / 지금네명 끊어지니 너도원통 하리로다 / 갑오독립 시켜놓고 을사체약 한연후에 / 오늘네가 북향할줄 / 나도역시 몰랐노라 / 덕닦으면 덕이오고 죄범하면 죄가온다 / 너뿐인줄 알지마라 너의동포 오천만을 /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둘씩 보는대로 / 내손으로 죽이리라"

거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채가구 역과 하얼빈 역을 거사장소로 정한 두 사람은, 정착 가능성이 더 높은 하얼빈 역으로 서로 가겠다고 고집하였습니다. 결국 우덕순이 채가구 역에, 안중근이 하얼빈 역에 대기하였습니다. 이토를 태운 기차는 채가구 역에 잠시 정차했다가 곧바로 지나쳐 갔습니다. 그리고 채가구 역과 인근 집의 모든 문을 폐쇄하고 사람들의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우덕순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써 이토 저격은 안중근이 행한 것입니다.

그 후 우덕순도 체포되어 국경지방 재판소에서 수일간 심문을 받은 후 일본총영사관 경찰서로 인계되었고, 다시 여순관동도독부 지방법원으로 호송되었습니다. 1910년 2월 22일 우덕순은 6회에 걸친 공판에서 3년의 징역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이토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장벽을 만든 사람이다. 내가 이 장벽을 없애버리려고 한 것은 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었기 때문에 본 사건에 가담했던 것이다. 그밖에 별 할 말이 없다"고 당당히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해 9월 여순감옥에서 경성감옥으로 압송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1908년에 탈옥한 것이 탄로나 다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사면을 받아 1915년 2월에 출옥하였지만 일경의 감시 때문에 5월에 다시 만주로 망명하였습니다. 하얼빈 치치하루 만주리 납하리하 등 각지를 왕래하면서 학교와 교회를 설립하였고, 교포들과의 연락과 제2세 교포들을 위한 육영사업에 헌신하는 한편, 민족운동에 전념하였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으로 일제의 세력이 만주 전역에 뻗쳤을 때, 그는 요시찰인으로 감시를 받아 수차례에 걸쳐 투옥 당했으나 굴하지 않고, 장로로서 교회를 근거 삼아 우리말 보존에 헌신하였습니다. 1945년 8월에도 일본헌병에 검속 당했으며 해방과 동시에 출감하여 흑룡강성 한인민단 위원장에 추대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교포들을 고국으로 수송하는 일에 주력하였습니다.

1945년 12월에 귀국하여 건국사업에 투신하였습니다. 1949년 대한국민당 최고위원에 피선되어 정치 일선에서 활동하다가 1950년 9월 26일 공산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1962년 3월 1일 건국공로훈장 단장이 추서되었고, 1968년 9월 국립묘지 서울 현충원 애국열사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결론 우덕순은 상동교회에서 민족적인 신앙을 배운 후 시베리아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는 이곳을 근거지로 독립투쟁을 전개하였고, 이토 히로부미의 러시아 순방 소식을 듣고 그를 제거하기로 하고 안중근과 하얼빈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하일빈 역을 맡았지만 안중근이 하얼빈 역을 맡겠다고 하여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 후 안중근의 거사가 성공하였음을 알게 된 그도 "까레이시케우라"(대한만세)를 외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활동은 잊혀졌다가 최근에서야 알려졌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기독교인이 민족적 원흉을 제거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2. 악을 제거하기 위해 기독교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찬　　송 : 490장(통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주기도문 : 다함께

11 과

신앙과 행동의 일치
곽만영

조용한 기도 : 다함께

찬　　송 : 460장(통 515장, 뜻 없이 무릎 꿇는)

기　　도 : 맡은 이

성경봉독 : 야고보서 2:14~26

참고성경 : 요한1서 3:18

요　　절 :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야고보서 2:22)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11월의 인물은 곽만영입니다. 그는 정동제일교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장로였습니다. 전도사로 활동했지만 사례를 받지 않고 헌신하는 봉사의 개념으로 하였습니다. 그는 신앙실천을 강조하였고, 모범을 보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과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였습니다.

본론

곽만영은 1904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문막상고를 졸업한 후 제약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1929년 어느 날,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며 정동제일교회에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후 김영섭 목사와 김종우 목사의 지도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1932년에 김영섭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후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였고, 설교 제목과 설교자 이름을 붓글씨로 크게 써서 교회 정문 옆에 붙이는 일도 했습니다.

일제 말기 정동제일교회의 엡웟청년회가 무산아동을 위한 야간학교를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엡웟청년회의 교육부장으로 활동하면서 교장직도 맡아 야간학교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야간학교는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민족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기 위한 학교였습니다. 약 70명의 학생들에게 한글과 일어, 산수와 음악,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으며 1943년까지 5년 동안 운영되었습니다.

해방 후 그는 신창균 장로와 함께 하던 조선성냥회사 상무이사직을 그만두었고, 출세의 길도 거부하면서 정동제일교회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세상 나라보다는 하나님 나라 섬기는 것을 우선시하였고, 1950년 3월부터 25년 동안 전도사로 시무하였습니다. 얼마 후 6·25전쟁이 일어나고 서울이 북한군에게 점령되자 대부분의 교역자와 교인들은 피신하였고 교회예배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주일이면 빠짐없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정동제일교회였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그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 "우리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봤다. 따발총을 둘러메고 눈알이 빨개 번득이는, 내 아들보다도 손자보다도 어린 인민군들의 감시 하에 예배를 봤다. 자연히 교인수도 많지 않았다. 30~4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봤다. 내가 사회를 봤고, 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다. 할 말을 마음대로 못하는 사

람의 서러운 듯도, 아픈 듯도 한 야릇한 가슴을 헤아려 보시라. 이보다 더 복통할 일이 있다. 강단 양쪽 벽에 스탈린과 김일성의 사진을 걸어놓고서 예배를 봐야만 했다. 일제의 황국신민서사보다도 더한 처사였다."

9월 28일 서울이 탈환되었으나 교회 안에는 전에 없던 새로운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피난 갔던 사람(도강파)과 서울에 남아 있던 사람(재경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강파는 재경파를 공산당의 협조자로 모는 반면, 재경파는 불가항력적이었다고 변명하며 무책임한 도망자들을 반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비 논쟁으로 끝나지 않고 살인의 비극까지 동반했습니다. 그 하나의 현장을 목격한 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9·28수복 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과 환희의 눈물을 마냥 흘렸다. 첫 예배를 마치고 감격이 가시기 전에 김인영 목사께서는 나와 어디 좀 함께 가자고 하셨다. 따라나섰다. 향촌동 청년자위대가 있는 곳이었다. 지금 관상대 뒷곁이었다. 흙더미 한 곳을 지적하시면서 '이곳을 함께 파십시다.' 나는 의아했다. '내 아들이오. 어제 낮 친구들의 오해로 부역자로 몰려 총살당했소.' 기가 막혔다. 가슴이 콱 치밀고 코허리가 찡해왔다. 이럴 수가 없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다."

그 후 전세가 역전되자 곽만영도 피난을 갔습니다. 1951년 3월, 서울이 다시 탈환되었으나 민간인의 서울 출입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상황이 걱정되었던 그는 7월 15일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그는 화물차편으로 노량진에 도착하여 하루를 지낸 다음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헌병들에게 사정을 말하고 겨우 특별 입성 허가를 받아 한강을 건넜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거리를 지나서 정동제일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정동제일교회의 상징과도 같았던 파이프 오르간이 파괴되어

있는 등 교회의 상황은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당시 목격한 것을 그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쑥과 망대가 내 키를 넘게 자라 있었다. 마구 헤치면서 교회당에 들어갔다. 기가 막혔다. 나는 털썩 주저앉았다. 주님의 섭리를 더욱 헤아리기 힘들었다. 강단이 폭격을 맞아 폭삭 무너져 내려앉고, 파이프 오르간이 망가져 있었다. 파이프가 휘어지고 부서져 파편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교회는 절반이 파괴되고, 목사관도 날아가고 없었다. 처참한 정경이었다."

이러한 모습을 정상적인 모습으로 복구하기 위해 그는 있는 힘을 다하였습니다. 우선 7월 18일의 주일예배를 위해 교인 몇 사람과 함께 무너진 교회당의 한 쪽을 치우고 예배 준비를 했습니다. 주일 11시에는 예배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종탑에 올라가서 힘껏 종을 쳤습니다. 그리고 11명이 모여 감격스런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그는 부산에 있는 김인영 목사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편지로 전했습니다. 폐품이 된 오르간을 고철로 팔아 교회 부속 건물의 일부를 수리하여 담임목사의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곽만영은 잠시 이태원교회를 맡아 담임전도사로 시무하기도 했으나 1954년부터 다시 정동제일교회로 복귀한 후 1976년 4월 '곽만영 전도사 성역 25주년 찬하 예배'를 드리고 은퇴하였습니다. 그는 전도사로 시무했으면서도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장로로 역할하면서 1992년 11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산을 통째로 하나님께 바쳤고, 교회에서는 이를 기념하여 남양주시 수동의 정동수양관에 만영홀을 설치하였습니다.

결론 곽만영은 방황하던 청년 시기에 정동제일교회에서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 이후 그는 한 번도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고 배운 대로 실천하며 정동제일교회와 함께하였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삶은 정동제일교회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신앙과 행동의 일치를 강조하였고, 모범을 보였기에 '살아 있는 성자'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는 온 나라가 가난하던 시절 거리에서 추위에 떠는 이들을 보고 자신에게 도와줄 것이 없자 입던 바지를 벗어 주고 속바지 차림으로 귀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숨겨진 사랑의 헌신이 사후에서야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에 의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야고보서 2:17)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2.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것이 어떤 종류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찬　　송 : 317장(통 353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주기도문 : 다함께

12과

한국의 첫 여성 법조인 이태영

조용한 기도 : 다함께

찬　　송 : 88장(통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기　　도 : 맡은 이

성경봉독 : 누가복음 4:16~21

참고성경 : 마태복음 9:35~38

요　　절 :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18~19)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올해 마지막으로 살펴볼 12월의 인물은 이태영입니다.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따라 붙는 그의 삶 자체가 한국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여성 최초'라는 것으로 높은 지위와 명

예, 권력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이것들을 다 내던지고 가장 힘없고, 가장 눌린 사람들의 벗이 되었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첫 여성 법조인'이라는 호칭을 단순한 직업이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평생의 책임과 사명으로 받아들여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본론

이태영은 1914년 평북 운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산업을 하던 아버지가 첫돌 직후에 별세하여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영변의 소학교와 숭덕여학교를 마친 후 평양으로 나와 정의여자고등보통학교를, 그리고 이화여자전문학교를 1936년에 졸업하였습니다. 1935년 11월에는 서울중앙기독교청년회(YMCA)가 주최한 '여자전문학교 학생웅변대회'에서 1등상을 받았으며, 졸업 후 평양고등성경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평양 남산현교회의 교사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1936년 12월 평양에 교회를 개척하여 시무하던 정일형 전도사와 결혼했습니다. 그 후 정일형이 감리교신학교 교수로 취임하여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해방 직전 고향 운산으로 이주하였다가 같은 해 12월 말 향리를 떠나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1946년 서울대학교에 남녀공학제도가 선포되면서 서울대학교 첫 여학생으로 법과대학에 진학하여 1949년 7월 졸업하였습니다. 1952년 12월 고등고시에 합격하여 사법시험 역사상 첫 여성 합격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김병로 대법원장은 이태영의 판사 임명을 건의했지만 야당 정치인의 아내라는 이유로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하여 법관으로 임용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되어 곧바로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여성운동을 시작하였고, 이 일을 평생의 과제로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차별적이며 유교적 인습이 남아 있는 가족법 개정운동과 호주제 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조계 초년생이 뭘 안다고 법을 고치려 하느냐", "쓸데없이 분란을 일으킨다"라는 법조계의 비난과 유학자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싸워가며 가족법 개정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했고 호주제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주장하며 호주제 폐지 운동에도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1989년 12월 3차 가족법이 개정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가 폐지운동을 시작한 지 53년 만에 호주제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그 소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백년 묵은 인간차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 주위의 많은 분들이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으니 축하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새로운 것을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제 자리'를 찾았을 따름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사람 노릇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가족법이 '여성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 모두의 법'이잖습니까."

1956년에는 '여성법률상담소'(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설립하여 법률 지식이 부족한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고 이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는 국내외 여자 정치인 및 여자 지식인 100명의 서명, 동의, 지원을 얻어 서울에 여성운동가들의 회관인 '여성백인회관'을 건축하였습니다. 여성백인회관은 여성을 위한, 여성의 집을, 여성의 힘으로 짓겠다는 일념 하에 뜻있는 여성들에게 한푼 두푼 기금을 모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1995년 병으로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이 땅의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불행한 자, 약자를 위한 본격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1962년에는 가정법원 설치 운동을 시작하여 정부에 가정법원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1년 만인 1963년 가정법원을 기존의 법원에서 독립

하여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1963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겸 학장이 되어 1971년까지 학생들을 지도하였으며 법학 외에 여성 참정권 등의 과목도 개설하여 가르쳤습니다. 1969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이혼연구"란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1981년 5월에는 그와 남편 정일형 박사가 함께 드루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수여받는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또 이태영은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에도 앞장섰습니다. 유신체제가 들어서자 한국교회는 1973년 "교회가 인권확립을 위해 책임을 다하려 한다"는 '인권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상설 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를 1974년에 조직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에 적극 참여하였고 다들 맡으려 하지 않았던 위원, 부위원장 등을 기꺼이 맡아 활동하였습니다. 1976년 3월 1일에 발표된 '민주구국선언'에도 연루되었고, 이로 인해 1977년에 3년 징역, 3년 자격정지의 실형이 선고되고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는 등 수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권익과 민주화를 위한 활동으로 그는 막사이사이상(1975년), 세계감리교협의회 평화상(1984년) 등 세계적인 상을 수상하였고 국내에서도 국민훈장 무궁화장(1990년), 3·1문화상(1992년) 등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남산교회 권사로 헌신하면서 대한 YWCA 연합회 실행위원, 감리교여선교부 명예회원, 세계감리교 총회(1993년)에 참석하여 주제강연을 하기도 하는 등 교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말년에는 치매로 오래도록 고생하다가 1998년 12월 17일 별세하였습니다. 저서로 「한국이혼제도연구」「차라리 민비를 변호함」「가족법개정운동 37년사」 등과 유고집 「정의의 변호사가 되라 하셨네」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역서들도 있습니다.

결론 이태영은 우리나라의 첫 여성 변호사입니다. 그는 40여 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힘없는 여성들의 인권과 고난받는 이들의 변론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이 땅의 고난받고 소외된 여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태영은 사랑과 열정으로 잘못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자였습니다. 상처받고 차별받는 이웃들을 위해 변론했고, 불의한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시대에 맞서 저항하며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 헌신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바로 한국여성의 현대사가 되었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2015년의 한 해 동안 우리와 우리 선교회, 그리고 우리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2. 이 땅의 가난한 자, 불행한 자, 억울한 자, 약한 자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찬　　송 : 91장(통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주기도문 : 다함께

집필자
조이제 목사

중앙연회 여주서지방 여주소망교회 담임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위원회 위원(2000~200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운영위원 역임
한국기독교역사학회 감사(현)

2015년 기독교대한감리회 평신도

월례회공과

감리교회를 빛낸 평신도 Ⅲ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처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110-73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TEL. 02-399-4346~8 / FAX. 02-399-4350

비매품